

당신들은 왜 뒷짐만 지나?...‘군함도’부부의 일갈

〈류승완 감독·강혜정 대표〉

뉴스인사이드

‘독과점’ 책임에 배급사·멀티플렉스 침묵
근거없는 ‘친일파 논란’에 협회도 방관
류승완·강혜정 부부, 결국 영화단체 탈퇴

영화계 이슈에 목소리를 내온 ‘군함도’의 류승완 감독과 강혜정 부부가 그간 몸담은 여러 영화단체에서 모두 탈퇴했다. 누구보다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영화인 부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을 두고 영화계 내부에서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화 ‘군함도’의 류승완 감독과 제작자인 영화사 외유내강의 강혜정 대표가 최근 한국영화 감독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여성영화인 모임 등 소속 단체에서 모두 탈퇴했다. 영화가 한창 상영중인 가운데 내린 결정으로,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부부가 단체 탈퇴를 결정한 표면적인 이유는



영화 ‘군함도’의 류승완 감독(오른쪽)과 제작자인 아내 강혜정 대표. 개봉 이후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활동해온 여러 영화단체에서 탈퇴했다. 사진제공 | 외유내강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촉발한 것에 대한 부담이다. 이번 기회에 영화계 고질적 병폐인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뜻을 드러내는 동시에 논의를 주도해야 할 영화 단체들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이다.

실제로 강혜정 대표는 “‘군함도’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법제화 마련 등으로 이어진다면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며 “영화계가 똑같이 느끼는 문제라면, 이번엔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7월26일 개봉한 ‘군함도’는 역대 극장 개봉작 가운데 처음으로 일일 스크린 수 2000개를 넘겼다. 여름 극장가에서 첫 테이프를 끊는 영화가 ‘군함도’가 아니었다면 다른 작품이 그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던 상황. 결국 ‘군함도’는 독과점이라는 ‘노이즈’에 휘말려 관객에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놓쳤다.

개봉 직후 일본 우익세력은 ‘군함도’가 조선인 징용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감독이 처음부터 ‘허구’라고 밝힌 조선인의 군함도 탈출 내용을 향한 공격이다. 동시에 국내서는 제작진을 향한 악의적인 성격의 ‘친일논란’이 일어났다. 논란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다.

류승완 감독과 강혜정 대표는 특히 친일논란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과 제작의 ‘의도’를 공격받는 과정에서 겪는 딜레마도 상당했다. 심지어 초·중학교에 다니는

부부의 자녀들마저 ‘아빠가 친일파’라는 말을 전해 듣고 집으로 돌아와 공급증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창작자로서 곤란한 논란에 휘말렸지만 이들이 몸담은 협회에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취하거나 도움을 줄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창작자의 의도가 왜곡되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보태줄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영화단체 한 관계자는 9일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공격받는 창작자를 돕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정 영화만 거론하기는 무리라는 시선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런 과정에서 공격은 류승완 감독에 집중됐다. 특히 논란의 출발이자, 여전히 뜨거운 갑자인 스크린 독과점을 둘러싼 ‘진짜 책임자’인 CGV 등 멀티플렉스 극장체인과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지금껏 감독과 제작진의 뒤에 숨어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9일 세 번째 미니앨범 ‘마이 데케이드’를 발표하고 가요계로 돌아온 제시카는 팬미팅 투어로 국내외 팬들을 만날 계획이다. 사진제공 | 코리올 엔터테인먼트

제시카, 특별한 팬사랑

데뷔 10주년 앨범 내고 가요계 복귀
방송활동 보다 연말까지 해외 팬미팅

가수 제시카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계획한 활동은 ‘팬미팅’이다.

9일 미니앨범 ‘마이 데케이드’를 발표하고 가요계에 복귀한 제시카가 방송 활동보다는 해외 팬미팅에 치중한다. 2014년 소녀시대 탈퇴 후 지난해 첫 솔로앨범 활동에서도 방송 출연이 없어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시카는 최근 진행된 캠프 인터뷰에서 “‘복면가왕’에도 출연하고 싶고, 방송 활동도 하고 싶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예정된 방송 프로그램이 없다.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 팬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이다.

제시카는 그 대신 1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과 응원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팬미팅을 계획했다. 팬들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번 앨범에 ‘스타리 나이트’라는 ‘팬송’을 담기도 했다.

제시카는 지난달 말 대만을 시작으로 13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제시카 온 클라우드 나인 텐스 애니버서리 라이브 인 서울’을 연다. 팬미팅에서 지난 10년간 팬들과 나눴던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팬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서울에 이어서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 홍콩에서도 팬미팅을 연다.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나라도 있어 올해 말까지는 해외 각국의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

제시카 소속사 코리올 엔터테인먼트 측은 9일 “데뷔 10주년을 기념한 앨범인 만큼 그 사랑을 보답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빵 터진, 그 남자 그 여자’ 배우 공형진의 한 마디에 임창정과 한소영(왼쪽부터)이 그야말로 ‘빵’ 터졌다. 9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영화 ‘로마의 휴일’ 제작보고회에서 포착된 장면이다. 평소 입담 좋기로 유명한 공형진은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특유의 개그 코드를 유감없이 보여줬고, 임창정도 가세하면서 행사 내내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공형진 임창정 정성훈이 주연을 맡은 ‘로마의 휴일’은 인생역전을 위해 현금수송 차량을 탈고 ‘로마의 휴일’이란 타이틀에 숨어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물로, 30일 개봉한다. 김진철 기자 kwangshin00@donga.com

전역 석달이나 남았는데...방송가 “이승기 잡아라”

드라마 제작사들 캐스팅 바쁜 움직임
하반기 방송 tvN ‘화유기’는 이미 제안

제대를 앞둔 가수 겸 연기자 이승기를 잡기 위해 드라마 제작사들이 분주하다.

지난해 2월 입대해 육군 특전사령부에서 복무중인 이승기가 10월31일 만기 제대하면서 그를 캐스팅하려는 움직임이 치열하다. 입대 전까지 활발히 활동을 펼친 이승기의 ‘이름값’ 효과다.

9일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이승기는 하반기 방송 예정인 tvN ‘화유기’ 출연 제안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초 방영을 목표로 기획



이승기

정미 더욱 치열하다. 1987년생인 이승기의 또래들은 군 문제를 앞둔 경우가 많아 제작사 측이 이들을 선뜻 캐스팅하기 어렵다. 또한 이승기는 연기력도 대중에게 인정받았고 모든 연령층에서 호감도가 높다는 강점을 지니

고 있다. 세 달 뒤 연예계로 돌아오는 이승기 앞에 일찌감치 ‘꽃길’이 펼쳐진 셈이다.

하지만 이승기는 신중을 기해 복귀작을 선택할 계획이다. 2014년 SBS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가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인 그는 군 복무하며 30대를 맞이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찾고 있다. 입대 전 촬영을 완료한 영화 ‘궁합’의 하반기 개봉 준비도 나간다.

이승기 측 관계자는 “감사하게도 드라마 출연 제의를 많이 받고 있다. 복귀작인 만큼 새로운 이승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가수 김현중 “새앨범 준비중...당분간 해외활동”

4월 음주운전 물의...비난여론 의식
충분한 시간 갖고 복귀 시점 정할 듯

가수 겸 연기자 김현중이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4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일본 활동에 집중해온 김현중이 7월 말 두 달간의 일본 투어를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해 현재 막바지 곡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앨범 발매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신곡을 선보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의 앨



김현중

범은 2014년 발표한 미니앨범 ‘타이밍’이 마지막. 그동안 본업인 가수 외에도 연기자로 입지를 넓히고, 병역의무까지 이행하느라 가수의 공백이 길었다.

그는 최근 발간된 한

일본 잡지의 8월호 인터

뷰를 통해 “새 앨범에는 작곡과 작사에 참여

했다”고 말해 팬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김현중 측 한 관계자는 9일 “앨범을 작업하

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기는 언제가 될지 미

정”이라며 “당분간 국내보다는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중이 앨범 발표나 국내 활동에 선했다 서지 못하는 것은 전 여자친구와의 법정다툼도 아직 진행 중이고, 4월 물의를 빚었던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과 아시아 등지에서는 김현중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외에서 시작해 국내활동을 천천히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김현중은 최근 발간된 잡지 표지를 장식한 것은 물론 4월 일본에서 발표한 새 싱글이 당시 오리콘차트에서 1위에 오르고, 일본 16개 도시에서 투어를 진행하는 등 ‘한류스타’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현영 기자

연예뉴스 스테이션

나인뮤지스 문현아, 7세연상 사업가와 결혼



문현아

결그룹 나인뮤지스 출신 문현아(30)가 9월3일 서울시 청담동의 한 웨딩홀에서 7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린다. 지난해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나인뮤지스에서 탈퇴한 문현아는 독립 레이블을 설립해 ‘대한극장’ ‘크라켓송’ ‘레메디 테이크2’ 등 음반까지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아는 9일 자필 편지를 통해 “제가 도전했던 많은 일들 중 가장 알 수 없는 곳을 탐험하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음제연, 방송사 매니지먼트사업 진출 반발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구성된 본 ‘음악제작사연합’(음제연)이 방송사들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한 매니지먼트 사업 진출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음제연은 9일 “대기업 및 방송미디어는 이미 음원유통과 판매, 음원제작, 공연을 아우르는 형태의 수직구조를 갖추고 최근 매니지먼트의 영역에까지 진출한 상태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전체의 수직계열화를 가져와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산업구조를 야기할 것”이라며 “다양한 연습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방송 미디어의(음반 공연 광고 행사 등 분야를 막론한) 수익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방송 미디어가 가지는 공익성과 공정성은 점점 훼손되어 가고 불공정한 구조의 확장으로 음악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한도전 ‘NBA 커리맨’美文론서 재조명

MBC ‘무한도전’이 NBA슈퍼스타 스티븐 커리와 치른 친선 농구경기로 미국 언론으로부터 조명받았다.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자사 사이트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등 SNS에까지 스티븐 커리의 ‘무한도전’ 경기 동영상을 게재했고, CBS, USA투데이 등 미국의 주요 매체도 이를 흥미롭게 보도했다. 스티븐 커리는 동생 제스 커리와 함께 5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 출연했고, ‘무한도전’ 팀과 2:5 친선 경기에서 승리했다.

외할머니 갈등 폭로 최준희양, 경찰조사 받아

외할머니와의 갈등 사실을 폭로한 최준희양의 딸 최준희 양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최준희 양 측에 따르면 경찰은 8일 최양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외할머니와 갈등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최준희 양은 5일과 6일 SNS에 외할머니와 갈등을 담은 글을 잇달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지인의 집에 머물던 최양은 이영자의 주선으로 8일부턴 서울 모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트와이스 ‘치어 업’ 유튜브 조회 2억건 돌파

트와이스의 ‘치어 업’ 뮤직비디오가 9일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돌파했다. 2016년 4월25일 공개된 ‘치어 업’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1시 29분 7842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케이팝 여가수 중 최초로 2억 조회수 돌파 뮤직비디오를 2개 보유한 팀이 됐다. ‘치어 업’ 뮤직비디오는 지난해 11월17일 1억 조회수를 돌파했다. 앞서 트와이스는 5월26일 ‘티티’ 뮤직비디오로 케이팝 여가수 사상 최초로 2억 조회수를 달성한 바 있다.

편집 | 최혜경·유진한 기자

책 랭킹		
자료:교보문고 7월 26일~8월 1일 1위 책 정보보기		
순위	제목	작가
1	기사단장 죽이기. 1	무라카미 하루키
2	언어의 온도	이기주
3	오직 두 사람	김영하
4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5	말의 품격	이기주
6	참. 1	베르나르 베르베르
7	보도보도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김신희
8	자존감 수업	윤종균
9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10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